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라고 정의하고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현존재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곤 한다. 하이데거는 이를 현존재가 익명의 타인들인 ㉠ ‘세인(世人)’으로서 존재하며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기에, 세인의 일원이 된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현존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확실성을 가지며, 삶의 일부분으로서 ‘아직 오지 않음’의 상태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죽음은 현존재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현존재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또한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스스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기에 대체불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며,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하고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는 본래적 삶을 살아가 수 없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현존재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세인으로 전락시켜 자신의 죽음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는 잘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하며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게 된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이러한 회피와 무관심이 현존재를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하여 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봄으로써 과거의 비본래적 삶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관점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통한 실존적 삶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나)

사르트르는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인간은 존재하는 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넘어 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실존적 존재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보았다.

하지만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기대와 자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되므로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며, 이는 곧 나의 사라짐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르트르는 죽음을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라고 보고, 이를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나’가 사라지면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주체인 ㉡ 타자이다. 가령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다고 하자. 이때 그의 죽음이나 그가 남긴 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부여된다. 이렇듯 사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삶에서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삶과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등 죽음은 삶에서 실감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르트르의 견해는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다. 고인의 삶은 타자인 나의 시선에서 재구성되므로, 이를 통해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르트르에게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이다. 여기서 주체적 태도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발휘하여 스스로 선택을 내리며 그에 대해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사르트르의 관점은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통해 특정 개념의 의미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나)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특정 개념에 대한 철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특정 철학자의 이론을 언급하며 이론이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역사적 인물의 삶을 분석하며 철학자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철학자의 관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7. (가)의 현존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존재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불안을 느끼게 된다.
- ② 현존재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 삶을 살아간다.
- ③ 현존재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때 고유성을 상실하고 비본래적 삶을 살게 된다.
- ④ 현존재는 죽음의 대체불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할 수 있다.
- ⑤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

18. (가)와 (나)를 바탕으로 ㉠과 ㉡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는 존재이고, ㉡은 죽음의 우연성을 부정하는 존재이다.
- ② ㉠은 자신의 죽음을 외면하는 존재이고, ㉡은 타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다.
- ③ ㉠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이고, ㉡은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 ④ ㉠은 익명성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는 존재이고, ㉡은 주체성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는 존재이다.
- ⑤ ㉠은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결단을 실현하는 존재이고, ㉡은 자신의 삶에서 기대를 실현하는 존재이다.

19. (나)의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보기>의 야스퍼스를 비판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야스퍼스는 ‘죽음은 나와 함께 변한다.’라고 말하며 죽음에 대한 태도가 고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죽음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의미를 지닌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 전자의 경우는 죽음을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허망한 종말로서 인식하는 데 그치지만, 후자의 경우는 자신의 태도에 따라 죽음의 의미를 판단하며 참다운 자기 자신으로서 실존할 수 있게 된다.

- ①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므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실존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 ②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우연한 사실이므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
- ③ 인간은 자유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죽음을 해석하여 실존할 수 있다.
- ④ 죽음은 나의 사라짐을 의미하므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찾지 못해 실존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
- ⑤ 인간은 각자의 기대에 따라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므로 자신의 죽음을 주관적인 의미로만 인식할 수 있다.

20.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일기이다. (가)의 하이데거와 (나)의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4. 09. 00. 날씨 맑음 ✨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주인공이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은 이후부터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사실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 삶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된다.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지. 내가 좋아하면서 가치도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 좋은 소설을 쓰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 줄 테니 훌륭한 작가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

- ① 하이데거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현존재가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겠군.
- ② 하이데거는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것을 현존재가 세인으로 존재했던 삶을 반성하는 자세라고 여기겠군.
- ③ 사르트르는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 주는 것에 대해 나의 삶이 타자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으로 해석하겠군.
- ④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모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삶의 실존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판단하겠군.
- ⑤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모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겠군.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 저장 및 분석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인터넷 서버에 저장된다. 그런데 현재 널리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통계 처리를 위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복호화 과정을 거친 후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암호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밀키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로 안전하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동형암호가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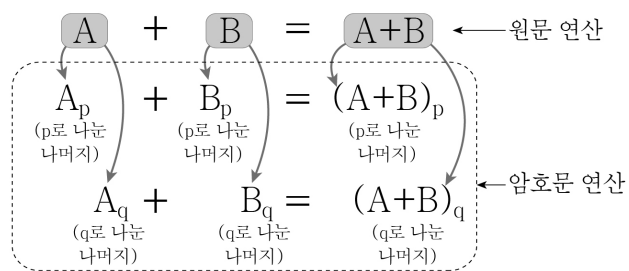
동형암호는 동형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동형성이란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특정 연산을 수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연산을 수행하고 암호화를 한 결과와 같은 것을 ㉡ 말한다. 이때 연산의 횟수에 제한 없이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부분 동형암호, 연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특정 횟수까지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제한적 동형암호라고 하며, 횟수에 제한 없이 컴퓨터의 주된 연산인 덧셈, 곱셈에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완전 동형암호라고 한다.

완전 동형암호는 암호화에 사용하는 원리에 따라 격자 기반, CRT(Chinese Remainder Theorem) 기반 등으로 ㉔ 나뉜다. 그중 ㉔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수학계에서 답을 찾기 어렵다고 알려진 격자 문제를 응용하여 만들어졌다. 이 방식은 원문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변환하고 각각의 비트를 개별적으로 암호화한다. 암호키 p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 더하면 암호문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무작위로 오롯값을 추가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그래서 암호문의 연산을 반복할수록 오롯값이 커지게 되며, 특히 곱셈 연산을 수행할수록 오롯값이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일정 횟수 이상 수행하면 원문 복호화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롯값이 한계치에 ㉕ 이르면 암호문은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일정 횟수의 덧셈과 곱셈 연산을 수행하여 암호문에 오롯값이 누적되면, 다른 암호키로 해당 암호문과 암호키 p를 암호화한다. 그리고 복호화 회로를 통해 기존의 암호키 p에 의한 이전 암호문을 복호화하면 그동안의 연산 과정에서 누적된 오롯값이 제거된 새로운 암호문이 ㉖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지면서 오롯값이 추가되지만 그 크기가 기존의 누적된 것보다 작아서 적절하게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수행한다면 지속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원문을 비트 단위로 변환하여 각 비트별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원문에 비해 암호문의 값이 10~100배가량 커져서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별 비트 단위로 암호문의 연산과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최근에는 효율성을 개선한 ㉗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가 등장하였다. 이 방식은 하나의 원문을 특정한 정수인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이용하고, 이 나머지 값에서 원문을 복호화하는 방법이다. 이때 암호키의 개수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원문마다 암호키의 개수만큼 암호문이 만들어진다. 암호키가 두 개일 때 정수로 된 원문 A와 B를 덧셈 연산한 결과가 동형성을 갖는 원리를 간단히 알아보자. 우선 서로소*인 임의의 정수 p와 q를 암호키로 정하고 정수로 된 원문 A와 B를 각각의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면 A_p , A_q 와 B_p , B_q 가 되는데 이 나머지 값이 원문 A와 B의 암호문이 된다. 그리고 <그림>처럼 각 원문을 동일한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인 A_p 와 B_p , A_q 와 B_q 끼리 서로 덧셈 연산을 수행한다. 만약 연산 수행의 결과값이 암호키와 같거나 암호키보다 크면 한 번 더 암호키로 나누어 나머지 값을 구한다. 그러면 연산 수행의 결과값인 A_p+B_p , A_q+B_q 가 원문 A와 B를 직접 덧셈 연산한 결과값을 암호키 p와 q로 나눈 나머지 값인 $(A+B)_p$, $(A+B)_q$ 와 같다. 그리고 원문을 각 암호키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값과 각 암호키를 알면 원문을 복호화할 수 있다.



<그림>

이 방식 또한 안전성을 위해서 암호키의 개수를 늘려 계산이 복잡하고 무작위로 오롯값을 추가하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데이터를 정수 단위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비트 단위로 암호화하는 격자 기반의 방식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CRT 방식은 원문보다 작은 나머지 값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격자 기반의 방식에 비해 연산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 연산 속도가 빠르고, 격자 기반의 방식과 달리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 비트: 정보량의 최소 기본 단위. 1비트는 이진수 체계(0, 1)의 한 자리.
* 서로소: 여러 개의 수 사이에 1 이외의 공약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

2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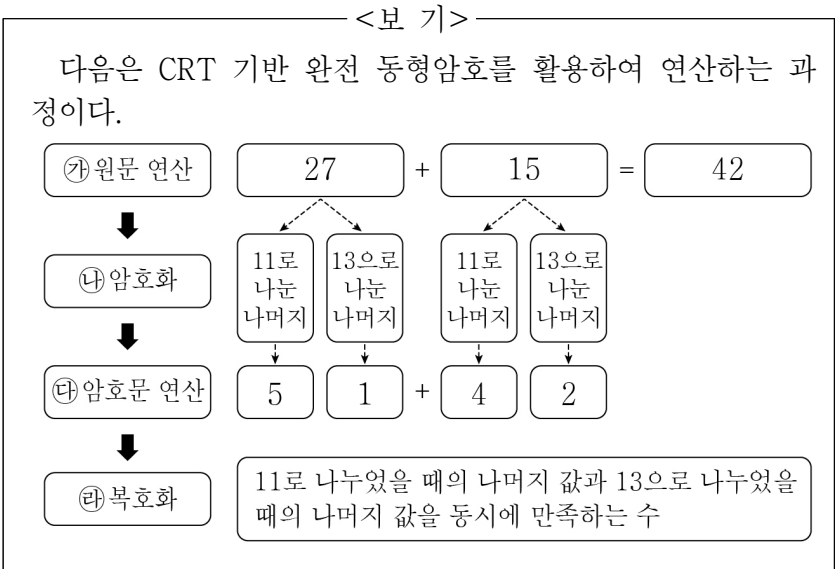
- ① 제한적 동형암호는 컴퓨터의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이다.
- ②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수학적으로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응용하여 만들어졌다.
- ③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연산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데이터로 복호화해야 한다.
- ④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원문을 특정한 정수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사용한다.
- ⑤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암호키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 더해서 암호문을 만든다.

22. 부트스트래핑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트스트래핑은 동일한 암호문을 연산할 때 덧셈 연산보다 곱셈 연산을 많이 수행할수록 더 빨리 시작된다.
- ② 부트스트래핑은 암호문의 연산 과정에서 오롯값이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진행된다.
- ③ 부트스트래핑에 사용되는 암호키는 이전 암호화에 사용된 암호키와 다르다.
- ④ 부트스트래핑의 과정을 거치면 이전 암호화된 암호문이 복호화된다.
- ⑤ 부트스트래핑의 결과로 생성된 새로운 암호문에는 오롯값이 없다.

23. ㉠과 ㉡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비트 단위로 암호문 연산을 수행한다.
 - ② ㉠은 ㉡과 달리 원문을 암호화했을 때 암호문의 값이 원문보다 커진다.
 - ③ ㉡은 ㉠과 달리 암호문에 오류값을 추가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 ④ ㉡은 ㉠과 달리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연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⑤ ㉠과 ㉡은 모두 암호문을 연산하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

24.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에서 원문 연산의 결과값을 암호키로 암호화하면 5, 4가 된다.
- ② ㉡에서 각 원문을 암호화한 암호키의 개수는 총 4개이다.
- ③ ㉢에서 만들어진 암호문을 연산한 결과값은 암호키로 다시 나눌 필요가 없다.
- ④ ㉣에서 암호키를 알면 나머지 값을 몰라도 원문 27과 15를 복호화할 수 있다.
- ⑤ ㉠~㉣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연산 결과값은 암호문과 달리 정수이다.

25.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달성(達成)되고
 - ② ㉡: 제시(提示)한다
 - ③ ㉢: 분리(分離)된다
 - ④ ㉣: 도달(到達)한
 - ⑤ ㉤: 결성(結成)된다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미란 놈이 흉한 심보로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사람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 놓았다. 옥외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치어다보기 **바르게**—

나비가 한 마리 꽃밭에 **날아들다** 그물에 걸리었다. 노오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파득거려도 나비는 **자꾸** 감기우기만 한다. 거미가 **쏟살같이** 가더니 끝없는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아 버린다.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다.

나이보담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거미줄을 형클어 버리는** 것밖에 위로의 말이 없었다.

— 윤동주, 「위로」 —

(나)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 보여 주리라
저 얼은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얼은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지금까지 **내 생각해 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친구 몇몇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 주게 되리.
오랫동안 네 여머온 고의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두 팔 들고 **얼음을 났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달빛.

— 황동규, 「달밤」 —

* 고의춤: 고의나 바지의 허리를 접어서 여민 사이.

2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통해 시적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 ⑤ 공감각적 심상을 이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7.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바르게’를 활용하여 사나이가 누워 있는 곳이 거미가 쳐 놓은 그물을 쳐다보기에 좋은 위치임을 나타내고 있군.
 - ② (가)에서 ‘자꾸’를 활용하여 거미가 쳐 놓은 그물에 걸려 계속해서 감기기만 하는 나비의 힘든 상황을 그려 내고 있군.
 - ③ (가)에서 ‘쏟살같이’를 활용하여 나비를 감기 위해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거미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군.
 - ④ (나)에서 ‘이제’를 활용하여 친구 몇몇과의 만남으로 인해 외로움이 아닌 길이 시작되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에서 ‘가득히’를 활용하여 달빛이 화자의 헐벗은 옷을 환히 비추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군.

28.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각각 일제 강점기와 1950년대의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화자가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는 다르다. (가)는 암울한 현실에서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하며 이를 위로하는 화자의 행동을, (나)는 질문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하여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나비’가 ‘꽃밭’으로 ‘날아’드는 것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 대응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에서 ‘한숨을 쉬’는 ‘사나이’를 위해 ‘거미줄을 형클어 버리는’ 것은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위로하는 화자의 행동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달빛’을 ‘받’으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가는 것은 달의 밝은 이미지를 내면화하여 순수한 삶을 살겠다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④ (나)에서 ‘내 생각해 온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거미란 놈’의 ‘그물’에 걸려 ‘나비’가 ‘날개를 파득 거’리는 것과 (나)에서 화자가 ‘얼은 들판을 걸어가’며 ‘얼음을 뚫’는 것은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여 부정적 현실을 드러낸 것이겠군.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그 자식들은 저희들이 나고 자란, 저희들의 텃자리인 집이 수몰이 되건 말건 관심이 없다. 수몰 보상금을 나눠 가진 뒤에는 제 어미가 어찌 살든 내려와 보지도 않는다. 이제 물이 들어차면 덕님은 순천의 막내딸년 집으로 가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시부모와 영감 산소를 지척에 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심정 누가 알아주랴. 평생을 살면서 영감 죽을 때 빼고는 이렇게 애통해 본 적이 없었다. 설이 가까워 오건만 어느 자식이 내려온다는 기별도 없다. 혼자서 설을 쇠어야 하나, 아니면 오라는 소리는 없어도 어느 자식 집으로 쇠러 가야 하나, 팔십 노구가 그저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생전에 사람 기척도 없던 집에 오늘은 무슨 방송국에서 촬영을 왔었다. 수몰민들이 마지막 설 준비하는 것을 촬영한다고 했다. 사진 박히는 건 질색이지만 그쪽에서 하도 마지막 설 준비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대싸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나온 젊은 처자가 하는 말이, 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시냐고 물었다.

[A]

“눈물이 보타부러서 그러는개비.”

“할머니 이제 금방 하신 말씀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래서 또 쑥스럽지만,

“눈물이 보타부러.”

처자가 깔깔대며 웃었다. 설 준비하는 흥내를 내라는 데 술에 넣고 끓일 것이 없어서 물이라도 붓고 불을 땀더니, 불 때는 것이 무슨 구경거리라고 또 사진을 박았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만수는 남도의 한 수몰 예정지에 살면서 월남 전에 함께 참전했던 대석을 부른다. 뚝방 동네에 살던 대석은 수몰 예정지에 사업거리가 있다는 만수의 말을 듣고 어린 아들 명호를 데리고 만수를 찾아가고 세 사람은 동네를 돌아다닌다.

명호의 노랫가락 덕분인지 그날 밤새 달빛조차 그득했다. 그득한 달빛 아래 그들이 모은 고물들은 내일 새벽 광주의 고물상으로 반출이 될 거였다. 문짝을 떼어 내느라 힘을 쓸 때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다가 나중에는 우지끈 소리에도 흥이 났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두 사나이가 그렇게 고물을 주워담는 동안 반지 남편 칠환이는 짐승 수집에 나서고 있는 참이었다. 칠환이는 작년까지 경기도 광주의 가구 공장에 다녔다. 그곳에서 아내인 반지를 만났다. 두 사람은 열심히 살아 보려고 했으나 칠환이 사고를 당했다.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다 오토바이와 함께 전봇대에 부딪혀 칠환은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행복과 불행은 늘 칠환에게 교대로 왔다. 아내를 만나자 사고를 당했고, 사고를 당하자 고향 집이 수몰 지구가 되었으니 보상금을 타 가라는 연락이 온 것이다. 집이라고 해 봤자 이미 폐가가 된 지 오래인 집으로 내려와 보상금을 타서 제 병원비로 다 써 버린 칠환은, 이제 남이 버리고 간 집에 제가 들어가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집은 기름 보일러로 개조한 집이라 칠환네는 기름 살 돈이 없어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요즘 마을 주변에는 떠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짐승들이 심심찮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짐승들을 물막이 공사하는 인부들이 더러는 키우기도 하고 더러는 잡아먹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오늘 칠환은 그 짐승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돈을 마련해 볼 생각인 것이다. 그러나 낮에는 용기가 없어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값나가는 소나 개는 이미 처분을 하고 떠난 뒤여서 동네는 값 안 나가는 고양이나 염소와 닭들의 세상이 되어 있었다. 이왕이면 염소를 잡으려고 칠환이 막 동네 고살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우지끈, 하고 집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집에 대한 철거 공사는 이주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한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철거 공사가 시작되었는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소리가 났으므로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몸을 숨기고 고개만 내밀어 바라본즉 저쪽에서도 뭔가 불길했던지, 두 명의 사나이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사방을 살피고 있는 중이다. 작은 머리통이 하나 더 나오는 것을 보니 사람 수는 세 명인 것이 분명했다.

“누구시오?”

① “집권이요.”

칠환이 목소리를 가다듬어 점잖게 말했다. 왜 제 입에서 집주인이란 말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생각건대 임기응변, 그것은 막다른 길에 접어든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최대의 무기가 아닐 수 없었다. 칠환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저쪽에서 고개를 쭉 집어넣어 버렸다. 아마 대책을 모의하는 모양이다. 대책을 모의해야 할 만한 상황인 것이 저자들이 필시 그리 몇몇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칠환의 머릿속에 재미있는 생각 하나가 획 지나갔다.

② “누가 이 야심한 밤에 남의 빈집을 털고 있는 거요?”

그때 다시 고개들이 연달아 쑥쑥 나왔다. 작은 머리통은 나오지 않는 걸 보니 그놈은 겁이 좀 많은 모양이다.

③ “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직원이요.”

칠환은 찡찡했다. 그러나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어,

㉞ “아직 집을 완전히 비우지도 않았는데 철거를 하다니요. 그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것을 아시오, 모르시오.” 최대한 머리를 짜내 구사한 말이긴 하지만 여간 떨리는 게 아니다. 그러나 절대로 떨고 있는 표시를 내면 안 된다. 저쪽에서 응답이 돌아왔다.

“여보시오, 집주인이란 자가 어째 몸을 숨기는 거요. 당신의 재산에 손을 대고 있는 자 앞에 뿔뿔하게 나와 보시오.”

“그럼 나도 묻겠소. 당신들이야말로 고개만 내밀고 있는 이유가 뭐요?”

“우리가 집주인인 당신이 무서워서 이러는 것 아니요.”

“그렇다면 협상을 하십시오. 집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재산에 손을 댔으니 **손댄 물건값**을 나에게 쳐주면 없던 일로 하리다.”

다시 머리 둘이 쪽 들어갔다. 머리가 언제 다시 나오려나, 칠환은 침을 꿀꺽 삼키며 기다렸는데, 느닷없이 건장한 두 사나이가 제 앞에 쭉 나타났다. 칠환은 그만 생포된 짐승같이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㉟ “**겹내지 마시오. 우리는 고물 장수들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주민이요. 아내와 아이가 기름이 없어 냉골에서 떨고 있어요. 짐승들을 본 적 있소?”

“사람은 없고 사방에 고양이 새끼들이던데 고양이 잡으러 나왔소?”

“그래라우.”

난데없이 본토박이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우리도 일은 대충 끝냈으니 **어디 한번 고양이나 잡아** 봅시다.”

“이왕이면 염소를 잡아 주시오.”

그렇게 해서 오밤중에 버려진 짐승들에 대한 사냥이 시작되었다. 겨울 달밤에 별이는 짐승 쫓기는 명호한테도 신나는 놀이가 아닐 수 없었다.

- 공선옥, 「먼 바다」 -

2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덕님’은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슬퍼하고 있다.
 - ② ‘두 사나이’가 동네에서 뜯은 문짝은 고물상으로 옮겨질 것이다.
 - ③ ‘칠환’은 가구 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었다.
 - ④ ‘칠환’은 고향 집에 대한 보상금을 자신의 병원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 ⑤ ‘명호’는 버려진 짐승들을 쫓는 달밤의 사냥에 동참하였다.

30. ㉑~㉞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있다.
 - ② ㉒: 상대방이 뿔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다.
 - ③ ㉓: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를 속이고 있다.
 - ④ ㉔: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자신감을 얻어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
 - ⑤ ㉞: 떨고 있는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31.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덕님과 논쟁하는 방송국 사람의 모습을 통해 언론의 비인간적인 속성을 부각한다.
 - ② 덕님의 생활을 관찰하는 방송국 사람의 모습을 통해 수몰민의 실상을 폭로하려는 언론의 의도를 드러낸다.
 - ③ 덕님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고 촬영하는 방송국 사람의 모습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언론의 면모를 드러낸다.
 - ④ 방송국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알리려는 덕님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수몰민의 의지를 부각한다.
 - ⑤ 방송국 사람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는 덕님의 모습을 통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 애쓰는 수몰민의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수몰 예정지에 사는 수몰민들의 모습을 통해 개발 난민이 겪는 현실을 보여 준다. 수몰 예정지인 마을에서는 생계 유지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보상금으로 인해 가족 공동체의 붕괴가 가속화되기도 한다. 또한 빈집이 늘어난 마을에 주민들의 눈을 피해 들어온 외지인과 아직 떠나지 못한 주민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한편 수몰 예정지에서 유랑하는 이들끼리의 연대를 통해 어려운 이들이 서로 돕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덕님의 자식들이 ‘수몰 보상금을 나눠 가진’ 후 ‘제 어미가 어찌 살든 내려와 보지도 않’는 모습을 통해 개발 과정에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② 칠환이 ‘남이 버리고 간 집’에 살면서 ‘짐승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는 모습을 통해 삶의 기반을 잃고 유랑하는 이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사람들이 ‘소나 개’를 처분하고 떠나 ‘고양이나 염소와 닭들의 세상이 되어 있’는 마을의 모습을 통해 주민들이 떠나 빈집이 늘어난 수몰 예정지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칠환이 두 사나에게 ‘손댄 물건값’을 치르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과 생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주민 사이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두 사나이가 칠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경계를 풀고 그를 도와 ‘어디 한번 고양이나 잡아’ 보자고 제안하는 모습을 통해 유랑하는 이들끼리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로 어떤 행위가 형법상 범죄 행위로 성립하려면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성립 요건인 구성 요건 해당성은 어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형법상 규정된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구성 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성 요건상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성립 요건인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에 위배된다는 가치 판단으로,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된다. 하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타인에 대한 폭력이 형법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성립 요건인 책임은 행위자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의미한다.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도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지 않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때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인 책임 조각 사유 역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예로 강요된 행위가 있다.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눌 수 있다. 고의범은 행위자가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로,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역시 고의범에 포함하고 있다.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이 대부분이지만, 실수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죄를 범할 의사는 없지만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과실로 인한 범죄인 과실범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과실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유무와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먼저 인식의 유무에 따라 과실의 유형을 나누면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로 나눌 수 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하다가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통과하던 중 교통사고를 ㉠ 일으킨 경우,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운전자의 행위는 인식 없는 과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했지만 주의해서 운전하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통화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자의 행위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두 과실은 형법상 취급에는 차이가 없고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와 구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실은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 ㉢ ‘통상의 과실’, ㉣ ‘업무상 과실’, ㉤ ‘중과실’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법정형에 차이가 있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가 계속적·반복적인 수행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

의의무를 위반하는 통상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이 경우 업무는 결과 발생 야기 행위의 내용이어야 하며 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중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통상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33.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볼 수 없다.
- ②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없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어떤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면 범죄로 볼 수 없다.
- ④ 어떤 행위가 형법상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의 세 가지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⑤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구성 요건상 행위와 결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34.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의는 과실보다 부주의로 인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 ② 과실은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 ③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유무가 고의와 과실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 ④ 고의와 과실은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유무와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 유무 모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⑤ 행위자가 자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의 유무에 따라 그 행위가 고의와 과실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업무로 인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얼마만큼 예견했는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
- ② ㉢과 ㉣은 주의의무에 대한 태만의 정도 차이를 기준으로 나뉜다.
- ③ ㉣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행으로 인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 ④ ㉣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 ⑤ ㉢~㉣은 형법상 과실 행위를 세분화한 것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있다.

36. 윗글을 참고했을 때, <보기>의 판결문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씨(견주)는 자신의 의류 매장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다. A 씨는 ○월 ○일 11시에 자신의 매장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과 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 씨의 반려견이 밖으로 나갔다. 이때 지나가던 B 씨에게 A 씨의 반려견이 달려들었고, B 씨는 A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상해를 입게 되었다. A 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매장 밖으로 나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손님과의 다툼으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

피고인(A 씨)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견주로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풀어놓고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B 씨)에게 상해 불명의 신체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 ① A 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 A 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 ② A 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식한 점은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쳤겠군.
- ③ A 씨가 손님과의 다툼으로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겠군.
- ④ A 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해 B 씨가 상해를 입게 된 점을 형법상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 ⑤ A 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 소홀로 타인을 다치게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점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3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동생이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켰다.
- ② 말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고 있다.
- ③ 그는 넘어지자마자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 ④ 선풍기는 전기를 동력으로 삼아 바람을 일으킨다.
- ⑤ 우리는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마 가뭄에 피해 입은 백성이 관찰사 가을 순행 기다림은
가을걷이 부족함을 채워줄까 해서인데 지나는 곳마다 죄를
묻는 폐단 있네
무는 재해도 감췄는데 목화밭이야 거론할까
백 묘(畝)나 되는 벌전 땅에 백지징세 하는구나
인자한 우리 임금 곡식 한 묶음도 모래 덮일까 염려하는데
불쌍한 백성 논밭에다 좁은 길 넓히려나
각읍 관리 독촉하니 채찍 몽둥이 낭자하다
허다한 관인들이 대호(大戶) 소호(小戶)에 분담시켜
사방(四方) 부근 십 리 안에 닭과 개가 멸종하네
부자는 뽕잠지만 가련한 이 가난한 자로다
해는 기울고 이정*은 저녁밥 재촉할 때
텅 빈 부엌에서 우는 아낙 밭 구르며 하는 말이
방아품에 얻은 양식 한두 되 있건마는
채소도 있건마는 그릇은 누구에게 빌릴꼬
앞뒷집 돌아보니 선달그믐에 시루 빌리는 격이로다
한 마을 닭과 개 다 먹어 치우고 집집마다 또 거둔단 말인가
대호(大戶)에는 한 냥 넘고 소호(小戶)에도 육칠 전이라
이 놀이 다시 하면 이 백성 못 살겠네
낙토(樂土)에서 태어난 사람 태평성대 좋다 하여
편안히 지내더니 하릴없이 떠도네
한 사람의 호사(豪奢)가 몇 사람의 난리 되고
집과 논밭 다 팔고서 어디로 가잔 말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우리 임금님 어진 마음 밝은 촛불 되게 하시어 비추소서 비추소서
소문에 들리기를 아전 향원(鄉員) 별한다기에
간악한 이 별하는가 여겼더니 음식과 도로(道路) 탓하는구나
노예 차출 무슨 일이고 순령수의 권세로다
음식은 넘쳐나고 **뇌물**은 공공연히 오고 가니
좋을시고 좋을시고 상평통보 좋을시고
많이 주면 무사하고 적게 주면 트집 잡네
춘당대(春塘臺)*에 치는 장막 오목대(梧木臺)에 무슨 일이고
참람(僭濫)한* **과거장서** **재주 겨루는 유생(儒生)**들이
오십삼 주* 시예향(詩禮鄉)에 의로운 선비 하나 없단 말인가
먹을 복 좋은 우리 순상* 출세운 좋은 우리 순상
들어오시면 육조판서 나가시면 팔도 관찰사
공명도 거룩하고 부귀도 그지없다
망극하도다 나라 은혜여 감격스럽도다 임금님 은혜여
한 토막 절개라도 있다면 온 힘을 다해 은혜에 보답하리라
배은망덕하게 되면 자손에게 화가 미치리라
- 작자 미상, 「합강정가(合江亭歌)」 -

*이정: 조선 시대에 지방 행정 조직의 최말단인 이(里)의 책임자.
*춘당대: 서울 창경궁 안에 있는 대(臺)로 옛날에 과거를 실시하던 곳.
*참람한: 분수에 넘쳐 너무 지나친.
*오십삼 주: 조선 시대에 전라도가 53주였음.
*순상: 조선 시대에 지방의 군무(軍務)를 순찰하던 일을 맡아보던 벼슬. 각 도의 관찰사가 겸임하였음.

(나)

돌아가리 돌아가리 말뿐이오 갈 이 없어
전원이 거칠어지니 아니 가고 어찌할까
초당에 청풍명월(淸風明月)이 나명들명 기다리나니

<효빈가>

농암*에 올라 보니 노안(老眼)이 오히려 밝구나
인사(人事) 변한다고 [잔첸]이야 변할 것인가
바위 앞 물과 언덕이 어제 본 듯하구나

<농암가>

공명(功名)이 끝이 있을까 수명도 하늘이 정한 것이라
금서 떠*에 굽은 허리에 팔십 넘어 만난 ㉠불이 그 몇 해오
해마다 오늘 같은 날이 역시 임금님 은혜로다

<생일가>

— 이현보, 「귀전록(歸田錄)」—

*농암: 경북 안동 예안의 분강(汾江) 가에 있는 바위 이름.

*금서 떠: 1품 또는 2품 관원의 조복에 두르던 금이나 물소 뿔로 만든 띠.

(다)

나는 긴 ㉡여를 동안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늘 [연못가]에 나가
고기들이 입을 빼꼼거리며 노는 모양을 구경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사람이 나에게 대나무를 베어다가 낚싯대
를 만들어 주고 또 바늘을 굽혀 낚시를 실에 달아 주었다. 그동
안 서울 생활에 바빠 일찍이 낚시 놓는 법도 알지 못했던 나는,
이웃 사람이 나를 위하여 낚싯대를 만들어 준 것만으로도 감사
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 낚싯대를 물에 던져 넣은 뒤에 온종일
을 기다려 보았다. 그러나 고기가 한 마리도 물리지 않았다.

(중략)

나는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낚싯대를 드리워 한
참 만에 서너 마리의 고기를 낚아 올릴 수가 있었다. 그 사람
은 또 말하기를,

“㉢고기 잡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잘 되었네만 ㉣고기 잡는
묘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였네.” 하였다.

그는 나의 낚싯대를 빼앗아 가지고 물속에 던져 넣었다. 그
는 내가 낚던 낚싯대와 내가 쓰던 미끼와 내가 앉았던 자리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그가 잡아 올리는 물고기는 마치 기다리
기라도 한 듯이 낚싯대를 던져 넣기가 바쁘게 달려 올라왔다.
광주리에서 건져 내는 것 같았고, 소반에 올려놓은 것을 세는
것 같았다. 나는 감탄하면서 말하였다.

“참으로 솜씨가 좋기도 하네. 자네, 그 묘한 솜씨를 좀 가르
쳐 주겠나.”

“잡는 방법이야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묘한 솜씨가 가르쳐 줄
수 있겠나. 만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묘수라고 할 수
없지. 그러나 내가 자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곧 자네가 내
가 가르쳐 준 대로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 낚싯대를 물속에 드
리워 놓고 정신을 집중하여 열흘이고 한 달이고 그 방법을 익
힌다면 그 묘법을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일세. 그렇게 되면 손은
알맞게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은 스스로 묘법을 이해하게 될 것
일세.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얻을 수 없는 것과, 또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던 오묘한 이치와, 한 가지는 깨달았지만 그 나머
지 두세 가지 깨닫지 못한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의혹
만 많아지는 것과, 또 환하게 깨달았지만 그 깨달은 까닭은 모
르는 것들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일세. 그러나 이런 것을 다
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간여할 수 있겠는가? 내가 자
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뿐일세.”

나는 낚싯대를 받아 물속에 던져 넣으면서 스스로 한탄하였다.

“참으로 그대의 말이 훌륭하다.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미루
어 이용한다면 그것이 어찌 낚시 놓는 데만 응용되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깨우칠 수 있
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를 두고 한 말 아닌가?”

— 남구만, 「조설(釣設)」—

3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
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
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묘사하여 장면을 구
체화하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인
식을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문학 작품에서 공간은 작품 안에 표현된 다양한 경험의
배경이자 상황적·역사적 맥락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
다. 작품 안에서의 공간은 인물들의 말과 행동, 대상의 이미
지나 상징 등과의 관련성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실현된다.

- ① (가)의 [논밭]은 지배층을 위해 길로 넓혀진다는 점에서 백성
들이 빼앗긴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가)의 [텅 빈 부엌]은 방아품으로 얻은 양식을 담을 그릇조차
없는 곳이라는 점에서 아낙이 자신의 처지에 슬픔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나)의 [초당]은 화자가 청풍명월과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여
긴다는 점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의 [잔첸]은 인사로 인해 변해 버린다는 점에서 변함없는
자연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투영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다)의 [연못가]는 ‘나’가 낚시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는 점에서 글쓴이의 배움이 확장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4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고, ㉡은
글쓴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시간이다.
- ② ㉠은 화자가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시간이고, ㉡은 글쓴이
가 이웃의 친절에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이다.
- ③ ㉠은 화자가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시간이고, ㉡은 글쓴이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시간이다.
- ④ ㉠은 화자가 한 해를 또 맞이하는 슬픔을 나타내는 시간이
고, ㉡은 글쓴이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반성하는 시간이다.
- ⑤ ㉠은 화자가 공명을 추구하던 시절을 의미하는 시간이고, ㉡
은 글쓴이가 대상과의 교감을 통해 과거의 상황을 추억하는
시간이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합강정가」는 순시를 온 관찰사를 위한 뱃놀이와 관련한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관리들이 백성에게 잔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 뇌물이 오고 가며 부정이 횡행한 일, 백성들이 가렴주구로 인해 유랑민이 되는 일 등 지배 계층의 유흥을 위해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고 수탈을 당하는 백성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 내고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의로운 선비에 대한 기대와 관찰사를 향한 경고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이 놀이’를 ‘다시’ 하게 되면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한 것은 지배 계층의 유흥을 위해 수탈을 당하는 백성들의 현실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백성들이 ‘집과 논밭’을 ‘다 팔고서’ 떠나는 것은 가렴주구로 인해 유랑의 길을 떠나야 하는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뇌물’을 ‘많이 주면 무사하고 적게 주면 트집’이 잡히는 것은 관리들이 뇌물을 받으며 부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유생’들이 ‘과거장’에서 ‘재주’를 ‘겨루는’ 것은 의로운 선비가 되기 위해 과거에 통과하기를 바라는 유생들의 기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배은망덕’하면 ‘자손에게 화가 미치리라’라는 것은 임금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관찰사를 향한 경고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42. (다)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 ② ㉡를 터득하면 다른 사람이 간여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에 대한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④ ㉠을 꾸준히 반복하여 익힌다면 마음은 스스로 ㉡를 이해하게 된다.
 - ⑤ ㉡를 알게 된 후에는 ㉠만 알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련님은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지금 어디를 가시는 길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하늘 옥황 문왕성 문 도령입니다. 지금 아랫마을 거무 선생님께 글공부 가는 길이에요.”

자청비가 문 도령을 찬찬히 살펴보는 데 인물이 단정하고 눈빛이 깊은 것이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거무 선생께 글공부를 간다 하니 같이 글공부하러 가고 싶은 생각이 불쑥 솟아났다.

“도련님, 우리 집에도 나와 닮은 남동생이 있는데 마침 거무 선생께 글공부하러 가고 싶어 합니다. 이름은 자청 도령이라 하니 같이 벗하여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자청비와 더 있고 싶은 문 도령은 선선히 그러겠

다고 대답하고는 자청비를 따라갔다. 자청비는 문 도령을 집 앞 골목에 세워 놓고,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아버님, 어머니, 저도 다른 선비들처럼 글공부하러 가고 싶습니다.”

대감이 펄쩍 뛰었다.

“계집아이가 글을 배워 무엇에 쓴단 말이고?”

어머니도 자청비의 손을 잡으며 달랬다.

“시집갈 나이가 다 되었는데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안 좋은 소문만 난다. 그러니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자청비가 차분하게 부모님을 설득했다.

“아버님, 어머니, 늘그막에 딸자식 하나 얻었는데 내일이라도 아버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기일 제사 때 축지방*은 누가 쓸 겁니까?”

그 말끝에 부모님이 뭐라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자청비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나에게 오라비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그저 집안에 자식이라곤 나 하나밖에 없는데, 여자라도 배워 놓으면 다 써먹을 데가 있습니다. 저라도 공부를 해서 축지방이나 쓰게 해 주세요.”

자청비의 말을 들은 대감은 마음이 움직였다.

“듣고 보니 그럴듯한 말이구나. 늘그막에 귀한 딸자식 하나 얻었더니 부모 기일 제사까지 벌써부터 챙기려고 마음을 쓰니 기특하구나. 그렇다면 거무 선생께 가서 글공부하도록 하거라.”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자청비는 방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두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책을 한 아름 안고, 붓도 몇 자루 감아쥐고는 부모님께 이별 인사를 드리는 등 마는 등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골목에 나가 보니 문 도령이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자청비는 시침을 뚝 떼고 다가가 인사를 했다.

“처음 뵈겠습니다. 저는 자청 도령인데 누님한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하늘 옥황 문왕성 문 도령이요.”

문 도령은 자청 도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가웃했다.

‘아무리 남매지간이라고 하여도 이렇게 닮을 수가 있는가? 자청 도령도 곱상하니 아가씨라고 해도 믿겠구나.’

문 도령과 자청 도령은 나란히 아랫마을 거무 선생에게 갔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자청 도령이 자청비임을 알게 된 문 도령은 자청비와 결혼을 한다. 한편, 이들을 시기한 하늘 무리들이 문 도령을 죽이고, 군졸들을 보내 자청비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자 자청비는 매미, 등에, 봉황새를 죽은 문 도령이 있는 방에 걸어 둔다.

“저 위에 보면 우리 낭군이 깔고 앉았던 방석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서 깔고 앉아 보십시오. 그것이 조금 무겁긴 하지만 사나이라면 그 정도는 거뜰히 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제가 스스로 가겠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무쇠 방석을 가리키며 말하자 군졸들이 달려들어 방석을 내리려 하였다. 그러나 어찌나 무거운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 도령이 이렇게 힘센 장수였구나. 아무래도 소문대로 보통 인물이 아니로군. 잘못하다가는 무슨 변이라도 당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

군졸들은 겁이 나서 누구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군졸들을 이끌고 온 우두머리가 문 도령이 누워 있는 방을 쳐다보며 한마디 했다.

“이놈들아, 걱정들 하지 마라. 그래봐야 죽은 목숨 아니냐? 죽은 목숨 아무 소용 없다.”

“맞는 말이로구나. 제아무리 잘난 문 도령이라도 이미 죽은 목숨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문 도령이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렸다. 주열제열 때미, 등에가 나는 소리, 봉황새 꺅꺅 부리 벌리는 소리가 코 고는 소리로 들렸던 것이었다.

“어이? 이거 무슨 소리인가?”

“문 도령이 코 골며 자는 소리 같은데. 문 도령은 죽은 것이 아닌가?”

그때 방 밖에 서 있던 머슴이 자청비가 시킨 대로 손을 한번 탁 쳤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군졸들이 겁을 집어먹고 앞다투어 도망쳐 버렸다. 위기를 모면한 자청비는 죽은 남편을 살려 내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들어가 갖가지 꽃을 얻어 왔다. 자청비가 가져온 살살이꽃, 피살이꽃, 도환생꽃을 남편의 시체 위에 뿌리자 문 도령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앉았다.

“아, 잘 잤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 주변이 왜 이처럼 어지럽소?”

자청비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일러 주었다.

“아, 그러니까 부인 덕에 내가 이리 살아났구려.”

문 도령은 또 한 번 자청비의 기지에 감탄하며 부인의 손을 꼭 잡았다.

하늘 옥황 천자국에 큰 사변이 일어났다. 검은 무리가 난을 일으켜 천자국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옥황상제 천지왕은 여기저기 방을 붙이도록 했다.

“이 난을 평정하는 자에게 하늘 옥황의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을 갈라 주겠노라.”

자청비는 문 도령과 함께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수레말망약심꽃을 들고 천자국으로 갔다. 수레말망약심꽃은 뿌리면 뿌리는 대로 많은 사람이 죽는 꽃이었다. 천지왕은 난을 평정하기 위해 왔다는 문 도령과 자청비에게 임무를 맡겼다. 전장으로 가 보니 삼만 명의 군사들이 칼을 치고 활을 받으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자청비는 천자국 병사들을 철수시키고는 수레말망약심꽃을 동서로 뿌려댔다. 그러자 난을 일으킨 군사들이 건삼밭의 늪은 삼 쓰러지듯 동서로 즐비하게 쓰러지며 숨이 끊어져 버렸다. 곧 난은 평정되고 천자국이 평온해졌다. 천지왕은 크게 기뻐하며 둘의 공을 치하했다.

“내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기름진 땅을 갈라 주겠으니 잘 맡아 다스리도록 하여라.”

그러나 자청비는 이를 사양하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 살고자 하니 대신 씨앗을 달라고 청을 드렸다.

“하늘님아, 하늘나라 기름진 땅 대신 **제주 땅에 내려가서 심을 오곡의 씨앗을 내려** 주십시오. 제주 백성들 농사짓고 살게 해 주겠습니다.”

천지왕은 자청비를 기특하게 여기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며 **여러 곡식을 내려** 주었다.

— 작자 미상, 『세경본풀이』 —

* 출처방: 제사 때 읽어 천지의 신령께 고하는 글을 적은 종이 조각.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인물의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인물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4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청비는 문 도령에게 자청 도령을 만날 것을 제안했다.
- ② 대감은 부모의 제사를 걱정하는 자청비를 기특하게 여겼다.
- ③ 군졸들은 문 도령이 살아 있다고 생각해 겁을 먹고 도망쳤다.
- ④ 난을 일으킨 군사들은 자청비가 뿌린 꽃에 의해 숨이 끊어졌다.
- ⑤ 천지왕은 천자국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자청비를 찾아가 도움을 구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세경본풀이』는 자청비가 농사를 관장하는 ‘세경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제주도 서사무가이다. 이 과정에서 자청비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제약을 받거나, 여러 난관에 봉착한다. 그때마다 자청비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상대와 동질성을 이뤄 상대방의 수용을 얻기도 하고, 상황을 미리 조작하여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한다. 또한, 유인책을 사용해 상대를 함정에 빠뜨려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 ① 자청비가 ‘자청 도령’ 행세를 한 것은 문 도령과의 동질성을 획득하기 위한 속임수로 볼 수 있겠군.
- ② 자청비가 ‘계집아이가 글을 배워 무엇에’ 쓰나며 부모로부터 글공부를 제지당하는 것은 자청비가 받는 사회적 제약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자청비가 무쇠 방식을 ‘우리 낭군이 깔고 앉았던 방식’이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려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유인책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자청비가 ‘때미’, ‘등에’, ‘봉황새’, 박수 소리를 이용한 것은 문 도령이 살아 있는 것처럼 상황을 미리 조작하여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자청비가 천지왕에게 ‘제주 땅에 내려가서 심을 오곡의 씨앗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여 ‘여러 곡식’을 받는 것은 자청비가 지닌 세경신으로서의 면모로 볼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2024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정답

1	4	2	4	3	5	4	2	5	2
6	1	7	3	8	4	9	2	10	5
11	4	12	3	13	2	14	4	15	1
16	5	17	2	18	2	19	2	20	5
21	1	22	5	23	3	24	3	25	4
26	1	27	4	28	1	29	3	30	4
31	3	32	4	33	1	34	5	35	1
36	2	37	1	38	5	39	4	40	1
41	4	42	3	43	1	44	5	45	3

해설

** 화법 **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4문단에서 '얼굴을 연구하는 ~ 드러난다는 것입니다.'라고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발표 자료 활용하기

북쪽인 경기가 충청 지방에 주로 분포하는 나무 장승에는 북방형 얼굴의 특징이 드러나고, 남쪽 지방에 주로 분포하는 돌 장승에는 남방형 얼굴의 특징이 드러날 뿐, 장승의 얼굴 유형으로 인해 장승을 만드는 재료가 달라졌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위해 [자료 2]를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1]을 제시하여 나무 장승을 관모의 유무로 구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② [자료 1]을 제시하여 장승을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래된 장승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③ [자료 1]을 제시하여 장승에 적힌 '서울 칠십 리'를 통해 장승의 이정표 기능을 보여 주었다. ⑤ [자료 2]를 제시하여 나무 장승에는 긴 얼굴과 뽕죽한 눈매의 북방형 얼굴의 특징이, 돌 장승에는 동글동글한 인상의 남방형 얼굴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설명하였다.

3. [출제의도] 반응 분석의 적절성 파악하기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렸으나 이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장승이 사찰 입구에 세워진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장승이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는 내용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아 아쉬워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장승에 돌 장승도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 유익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④ '학생 1'은 책을 통해, '학생 2'는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계획하고 있다.

** 화법·작문 **

4. [출제의도] 토론의 입론 이해하기

(가)의 '찬성 1'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사고 처리나 피해 보상을 비교적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은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를 드러낸 것일 뿐, 제도 개선 과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쟁점을 추가한 것도 아니다. ⑤ 소형 드론이 문제를 일으켜도 소유주를 알 수 없다는 현 제도의 문제점은 설명하고 있으나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 '찬성 1'은 상대측이 제기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 대해 신고 대상 드론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을 뿐, 상대측의 질문 내용이 논제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① [A]의 '반대 2'가 '이 경우 ~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상대측의 의견을 통해 추론한 내용을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B]의 '반대 2'가 '언급하신 자료는 ~ 아니지 않나요?'라고 말한 부분에서 상대측이 제시한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B]의 '찬성 1'이 '네, 맞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상대측의 문제 제기를 인정하면서도 '2kg 이하 ~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자신이 제시한 근거가 타당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반대 2'가 [A]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 한다고 말씀하셨는데,'라고 말한 부분과 [B]에서 '조사 대상 ~ 일으켰다고 하셨는데,'라고 말한 부분에서 상대측의 발언 일부를 재진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가)의 '찬성 1'이 '현재 시행 ~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에서 언급한 기제 신고 기준과 '하지만 드론 ~ 조종할 수 있어,'에서 언급한 조종 자격 차등화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1문단에서 '현행 드론 실명제에서는 ~ 차등화하고 있다.'를 통해 현행 드론 실명제 규정을 소개하고 있다.

② (나)의 2문단에서 언급한 다른 나라의 기제 신고 기준은 (가)의 '찬성 1'의 '미국과 중국 ~ 하고 있습니다.'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나)의 2문단에서 우리나라의 기제 신고 기준과 비교하고 있지도 않다. ③ (가)의 '찬성 1'이 '드론 실명제 적용 대상 ~ 있을 것입니다'에서 언급한 드론 실명제 개정 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나)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성숙한 드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의 3문단에 제시되어 있으나, 제도의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⑤ 드론 산업의 발전 가능성 및 전방과 드론 활용 분야의 예시를 (나)의 4문단에서 '드론 산업의 ~ 것이다'와 '배달 ~ 것이다'를 통해 각각 제시하고 있으나, (가)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7. [출제의도] 교쳐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나)의 마지막 문단과 <보기>를 비교하면, <보기>에는 (나)의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 확대될 것이다.'라는 드론 산업의 시장 규모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적절한 규정과 ~ 발전할 것이다.'라는 드론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작문 **

8. [출제의도]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학생의 초고에 청소년기 시력 이상의 종류별 발생 원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1문단에, 눈은 일상생활의 많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건강한 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② 2문단에, 성장기에 이미 시력 이상 상태에 놓인 청소년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시력 이상 상태에 해당하는 학생이 약 73%에 달할 만큼 심각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③ 3문단에, 시력 이상 상태인 청소년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굴절 이상으로 인해 먼 곳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제시되어 있다. ⑤ 3문단에, 고도 근시의 경우 다양한 안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둘 사이의 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9. [출제의도] 글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편집부장의 조언 중 요즘 청소년들의 눈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청소년 시력 이상 적신폭'에서 나타내고 있고, 독자에게 당부하는 바는 '일상 속 실천으로 눈 건강을 지키자'에서 나타내고 있다.

10.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ㄱ-1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력 이상 상태인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연도별로 보여 주는 자료이며, ㄱ-2는 시력 이상 상태이지만 시력 교정을 하고 있지 않은 고도 학생의 비율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ㄴ은 청소년기에 시력 교정이 필요한 이유와 고도 근시에 따른 안질환 발생 위험 증가에 대해 알려 주는 자료이다. ㄷ은 디지털 기기를 근거리에서 장시간 볼 경우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ㄴ과 ㄷ 모두 근시의 시작 시기와 근시의 위험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ㄴ과 ㄷ을 활용해 일찍 시작된 근시일수록 고도 근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자료 활용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① ㄱ-1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력 이상 상태인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연도별로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청소년 눈 건강의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2문단에 추가하기에 적절하다. ② ㄴ은 고도 근시의 위험성 및 고도 근시가 유발할 수 있는 안질환의 종류를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고도 근시의 위험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3문단에 추가하기에 적절하다. ③ ㄷ은 디지털 기기를 근거리에서 장시간 볼 경우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집중적으로 볼 때는 적절히 눈의 피로를 풀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4문단에 제시하기에 적절하다. ④ ㄱ-2는 시력 이상 상태이면서도 교정을 받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30%가 넘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ㄴ은 시력 교정이 필요한데도 시력 교정을 하지 않으면 시력이 더 저하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ㄱ-2와 ㄴ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한 시력의 점검 및 교정 노력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자료로 4문단에 제시하기에 적절하다.

** 문법 **

11. [출제의도] 표제어의 표기 이해하기

'뒤집히다'는 접두사 '뒤-'와 피동 접사 '-히-'가 동시에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뒤집-히다'와 같이 피동 접사 앞에 붙임표로 분석하여 표기한다.

① '1월'과 '9월'은 사전에 '일월'과 '구월'로 표기되므로 표제어가 가나다순으로 배열된다는 원칙에 따라 '1월'보다 '9월'이 먼저 제시된다. ② '새해'는 '새'와 '해'가 합쳐진 합성어이므로 '새-해'와 같이 붙임표로 분석하여 표기한다. ③ '비웃음'은 '비웃다'에 접사 '-음'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비웃-음'과 같이 붙임표로 분석하여 표기한다. ⑤ '기쁨'은 '기쁘다'에 명사 파생 접미사 '-로'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지만 '기쁘-+로'와 같이 구성 성분이 음절로 나누어지지 않아 붙임표를 따로 제시하지 않고 '기쁨'으로 표기한다.

12. [출제의도] 표제어의 순서 파악하기

표제어가 동음이의어일 경우 어휘 형태, 문법 형태 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며, 문법 형태 중에서는 어미, 접사의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전에는 명사 '이'가 가장 먼저 수록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어미 '-이'가 수록되어 있고, 마지막 순서로 접사 '-이-'가 수록되어 있다.

① 『표준국어대사전』은 흔히 쓰는 비표준어도 수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표준어 표제어의 경우 '-을'를 활용하여 표준어의 뜻을 풀이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잊어른'은 비표준어이지만 사람들이 흔히 쓰고 있어서 선정된 표제어임을 알 수 있다. ② 표제어 배열에 있어 중성의 경우 '내, 기, l'의 순서로 배열하고 있으므로 '젠지', '잊어른', '이상^결정'의 순서로 사전에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접사와 어미처럼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해야 하는 표제어는 결합하는 부분에 '-을' 붙여 표시하고 있으므로, 어미 '-이'와 접사 '-이-'는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해야만 쓸 수 있는 표제어임을 알 수 있다. 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단어 이하의 단위만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문어의 경우 구까지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상^결정'은 구이지만 전문어이기 때문에 표제어로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탐구하기

'학생 l'이 쓴 '숨이불[숨니불]'에서는 첨가가 일어나고, '학생 3'이 쓴 '발하다[발파다]'에서는 축약이 일어난다. 앞 학생이 쓴 단어에서 일어나지 않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쓰는 활동이므로 첨가와 축약을 제외하고 교체 또는 탈락이 일어나는 단어를 쓰면 된다. '웃렘시[운렘씨]'에서는 다른 음운 변동 없이 교체만 일어나므로 적절하다.

① '삐입[삐닐]'에서는 탈락, 교체, 첨가가 일어난다. ③ '겉핥기[거탈기]'에서는 교체, 탈락, 축약이 일어난다. ④ '색연필[생년필]'에서는 첨가, 교체가 일어난다. ⑤ '늪죽하다[넙죽하다]'에서는 탈락, 교체, 축약이 일어난다.

14. [출제의도] 인용 표현 탐구하기

ㄱ은 '그는 나에게 내가 자기의 책을 보았냐고 물었다'와 같이 간접 인용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인용 문장과 비교했을 때, 인용 조사(라고→고), 인용절의 대명사(당신→내, 저(의)→자기(의)), 높임 표현(-시(었)-→(-았-)), 종결 어미(-습니까→-냐)에 변화가 생긴다. ㄴ은 '나는 어제 그에게 그녀는 오늘 도착한다고 말했다'와 같이 간접 인용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인용 문장과 비교했을 때, 인용 조사(라고→고), 인용절의 시간 표현(내일→오늘), 종결 어미(-느냐→-냐)에 변화가 생긴다.

15. [출제의도] 중세국어 'ㅎ' 중성 체언 이해하기

'내ㅎ'와 '이'가 결합할 때, '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이므로 '내ㅎ'와 '이'가 결합하면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어서 '내히'라고 써야 한다. '우ㅎ'와 '과'가 결합할 때, '과'는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이므로 '우ㅎ'와 '과'가 결합하면 'ㅎ'은 뒤따르는 'ㄱ'과 어울려 'ㅋ'으로 나타나서 '우과'라고 써야 한다. 따라서 ㉠에는 '내히'를, ㉡에는 '우과'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인문 **

□ 출전: (가)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

(나) 장 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16.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는 '현존재'나 '세인' 등의 개념을 설명하며 하이데거의 관점이 새로운 결단을 통한 실존적 삶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나)는 '타자'나 '죽음의 우연성'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과 인간이 죽음에 유연하지 않고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르트르의 관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① (가)는 하이데거가 언급한 특정 개념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미 변화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② (나)는 죽음에 대한 사르트르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만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③ (가)는 하이데거가 설명한 죽음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나)에서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타자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청년'이 책을 쓰고 죽은 상황을 예로 들기는 하였지만, 이 청년을 역사적 인물로 볼 수 없으며 청년의 삶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17.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가)의 3문단에 따르면, 현존재가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래적 삶을 살기 위한 조건으로 죽음을 은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1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가)의 4문단을 통해 죽음을 외면할 때 고유성을 잃게 됨을 알 수 있고, (가)의 2문단을 통해 세인(㉠)은 고유성을 잃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죽음을 외면하는 존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나)의 3문단과 4문단을 통해 타자(㉡)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며 타인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1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죽음은 나의 외부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며,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지 않고 나의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나)의 3문단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으며 죽음은 그저 객관적인 사실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보기>에 따르면, 아스트르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죽음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우연한 사실이므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사르트르의 관점에

서 아스트르스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①,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사르트르는 죽음에 대한 인식 없이도 주체적 선택을 통해 실존적 삶을 살아가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인간이 실존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과, 인간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찾지 못해 실존적 삶을 살아가갈 수 없다는 것은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사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사르트르는 죽음을 객관적 사실로만 보고 있으므로 자신의 죽음을 주관적인 의미로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가)의 5문단을 통해 하이데거는 본래적 삶을 살기 위해 죽음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의 4문단을 통해 사르트르는 실존적 삶을 살기 위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닌 주체적 선택과 책임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사르트르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에 대해 현존재가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것이다.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을 세인으로 존재하며 비본래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별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것을 현존재가 세인으로 존재했던 삶을 반성하는 자세라고 여길 것이다. ③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사르트르는 고인의 삶이 타자의 시선에서 재구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가지 있게 기억해' 주는 것을 나의 삶이 타자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④ (가)의 5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실존적 삶으로 보았고,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사르트르는 스스로 선택을 내리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실존적 삶으로 보았다. 따라서 하이데거와 사르트르 모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삶의 실존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판단할 것이다.

** 기술 **

□ 출전: 임지순 역, 『리얼월드 암호학』

2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에서 제한적 동형암호는 컴퓨터의 특정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가 아니라 연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특정 함수까지도 동형성을 갖는 암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수학 계에서 답을 찾기 어렵다고 알려진 격자 문제를 응용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검색이나 통계적인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복호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6문단에서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하나의 원문을 특정한 정수인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이용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암호키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 더하면 암호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4문단에서 부트스트래핑의 과정을 수행하면 그 동안의 연산 과정에서 누적된 오롯값은 모두 제거되지만 부트스트래핑의 과정에서 새로운 오롯값이 추가되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의 결과로 생성된 새로운 암호문에 오롯값이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암호문의 연산을 반복할수록 오롯값이 커지는데 특히 곱셈 연산을 수행할수록 오롯값이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동일한 암호문의 연산을 수행할 때 덧셈 연산보다 곱셈 연산을 많이 수행할수록 부트스트래핑이 더 빨리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과 4문단에서 암호문에 오롯값이 누적되어 한계치에 이르면 지속적인 연산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해 부트스트래핑은 암호문의 연산 과정에서 오롯값이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부트스트래핑은 이전 암호화에 사용한 암호키와는 다른 암호키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암호문과 암호키 p를 제암호화하고 이를 복호화 회로를 통해 복호화하면 이전의 암호문이 복호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에서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가 암호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오롯값을 추가하여 안전성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7문단에서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가 안전성을 위해 무작위로 오롯값을 추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3문단과 5문단에서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가 원문을 비트 단위로 변환하여 각 비트별로 암호화하고 개별 비트 단위로 암호문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6문단과 7문단에서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가 데이터를 정수 단위로 암호화하고 연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원문을 비트 단위로 변환하여 각 비트별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암호문이 원문에 비해 10~100배 가량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6문단에서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원문을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암호문의 값이 원문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7문단에서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와 달리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연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완전 동형암호는 암호문을 연산하는 횟수에 제한 없이 덧셈, 곱셈 연산에 동형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6문단에서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연산할 때는 각 원문을 동일한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끼리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때 만약 연산 수행의 결과값이 암호키와 같거나 암호키보다 크면 한 번 더 암호키로 나누어 나머지 값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사용된 암호키는 11, 13이고 원문 27을 암호키 11로 나눈 나머지 값 5와 원문 15를 암호키 11로 나눈 나머지 값 4를 덧셈 연산하면 9가 된다. 그리고 원문 27을 13으로 나눈 나머지 값 1과 원문 15를 암호키 13으로 나눈 나머지 값 2를 덧셈 연산하면 3이 된다. 이때 암호문의 연산 결과값인 9와 3은 각각 암호키 11과 13보다 작기 때문에 해당 암호키로 다시 나눌 필요가 없다.

① <보기>에서 원문 연산의 결과값인 42를 암호

키 11과 13으로 암호화하면 각각 9와 3이 된다. ② 6문단에서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암호키의 개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때 각각의 원문마다 암호키의 개수만큼 암호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각 원문에 대해 암호문의 개수가 2개이므로 각 원문을 암호화한 암호키의 개수가 총 2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6문단에서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원문으로 복호화하기 위해서는 암호키와 원문을 암호키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6문단에서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원문을 정수 단위로 암호화하고 연산하기 때문에 암호문과 암호문의 연산 결과값은 모두 정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5.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이른’은 오롯값이 한계치에 다다른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어떤 수준에 이르러 다다른’이라는 의미의 ‘도달(到達)’과 문맥상 바꾸어 쓸 수 있다.

① ‘달성(達成)된다’는 ‘목표나 바가 성취되고’의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제시(提示)한다’는 ‘어떤 의사를 글이나 말로 드러낸다’의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분리(分離)된다’는 ‘서로 나뉘어 떨어지거나 그리 된다’의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결성(結成)된다’는 ‘단체나 조직 따위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현대시 **

□ 출전: (가) 윤동주, 「위로」
(나) 황동규, 「달밤」

26.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파득거려도’, ‘끝없는’ 등의 시어를, (나)는 ‘친구 몇몇’, ‘달빛’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나)는 ‘달밤’이라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27.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나)에서 화자는 달빛이 비추는 들판을 걷는 것이 외로움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친구 몇몇 그들에게’ 보여 주는 시점을 ‘이제’를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몇몇과의 만남으로 인해 외로움이 아닌 길이 시작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가)에서 ‘나비’는 우리 민족을, ‘꽃밭’은 ‘나비’가 도달하고자 하는 공간 또는 이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비’가 ‘꽃밭’에 ‘날아’드는 것을 화자가 일제 강점기 암울한 현실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에서 ‘거미란 놈’이 쳐 놓은 ‘그물’에 걸려 ‘나비’가 ‘날개를 파득거리’는 것은 자연물을 활용하여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얼음을 뱉’으며 ‘얼은 들판을 걸어가’는 상황에 있으며 이는 자연물을 통해 1950년대의 부정적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현대소설 **

□ 출전: 공선숙, 「먼 바다」

29.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술을 먹고 ~ 되고 말았다.’라는 부분에서 ‘칠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칠환이 가구 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① ‘이제 물이 ~ 쪼여지는 것만 같았다.’라는 부분에서 ‘떡남’이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슬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그득한 달빛 ~ 반쯤이 될 거였다.’, ‘문짝을 떼어 내느라’라는 부분에서 두 사나이가 동네에서 뜯은 문짝이 고물상으로 옮겨질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보상금을 타서 제 병원비로 다 써 버린 칠환’이라는 부분에서 ‘칠환’이 고향 집에 대한 보상금을 병원비로 모두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그렇게 해서 ~ 아닐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명호’가 버려진 짐승들을 쫓는 달밤의 사냥에 동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직원인 척하는 두 사나이의 말에 ‘여간 떨리는 게 아니다’, ‘떨고 있는 표시를 내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칠환이 이 상황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한다고 판단하여 자신감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칠환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임기응변, 그것은 ~ 최대의 무기’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상대방들의 행동에 대해 ‘땀땀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면 ‘서’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땀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두 사나이가 빈집의 고물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칠환이 ‘생포된 짐승같이 바들바들 떨’자 두 사나이가 고물 장수라는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으로 보아 떨고 있는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31. [출제의도] 장면의 기능 파악하기

[A]는 방송국 사람이 수물민인 덕님의 집에 찾아와 촬영을 하는 장면이다. 방송국 사람이 덕님에게 마지막 설 준비를 하는 기분을 묻자 덕님은 울음을 터뜨렸는데 이에 대해 방송국 사람은 덕님의 처지에 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잘까말까 웃’고 ‘설 준비하는 흥내’를 내라고 하며 덕님의 모습을 촬영한다. 따라서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언론의 면모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④ 덕님이 사진 찍히는 것이 ‘질색’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덕님이 방송국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알리려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덕님은 방송국 사람의 질문에 따라 답을 하고, ‘설 준비하는 흥내’를 내라는 요구에 따라 물을 붓고 불을 땀다는 점에서 방송국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덕님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애쓰는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수물 예정지에 고물을 뜯으러 온 대석은 주민들의 눈을 피해 들어온 외지인이다. 칠환은 수물 예정지가 된 고향으로 돌아와 이미 보상금을 받았지만 병원비로 써 버린 상태이다. 이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마을을 떠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칠환이 말하는 ‘손대 물진값’은 칠환의 재산이 아니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주민 사이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① 덕님의 자식들은 집이 수몰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수몰 보상금을 나눠 가진 뒤에는 덕님을 찾아와 보지도 않는다. 따라서 개발 과정에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② 수몰 예정지가 된 고향으로 돌아와 기쁨을 벌기 위해 짐승 사냥을 하는 칠환에 대해 유랑하는 이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③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값나가는 소나 개는 처분했기 때문에 마을이 값이 안 나가는 고양이, 염소, 닭의 세상이 되었다고 했으므로 고양이와 염소와 닭들의 생상이 되어 있는 마을의 모습을 통해 주민들이 떠나 빈집이 늘어난 수몰 예정지의 상황을 보여 준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⑤ ‘아내와 아이가 기쁨이 없이’ 떨고 있다는 칠환의 말에 두 사나이는 수몰 사냥에 동참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두 사나이가 칠환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을 통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사회

□ 출전 : 박상기, 「형법학」

33.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에 따르면, 책임 조각 사유의 예로 강요된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가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라면 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 따르면, 구성 요건 해당성은 어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형법상 규정된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구성 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기술을 통해 구성 요건이 행위와 결과를 모두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없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1, 2문단에 따르면, 구성 요건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의 유형이다. 어떤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1문단에 따르면, 형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세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에 따르면, 구성 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성 요건상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3문단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또한 4문단의 인식 있는 과실의 예는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주의해서 운전하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점에서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와 구별하는 것은 행위자가 자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의 유무에 따라 그 행위가 과실과 고의로 구별되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① 3문단에 따르면 고의는 행위자가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고, 과실은 죄를 범할 의사가 없지만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부주의로 인해 죄를 범할 가능성은 과실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의가 과실보다 부주의로 인해 죄를 범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구분하는 이유로도 볼 수 없어 적절하지 않다. ② 과실의 유형을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유무로 나누는 것이 과실과 고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④ 3, 4문단에 따르면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는 모두 결과(범죄)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므로 과실과 고의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

3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5문단에 따르면, 통상의 과실은 일반인에게,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적용되는 과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업무상 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달라지는 것이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얼마만큼 예견했는지의 차이에 의해 법정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5문단에 따르면, 중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은 계속적·반복적인 수행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의 과실보다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5문단에 따르면, 중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로 통상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 따르면, 과실은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 나누고 법정형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에 A 씨가 반려견이 매장 밖으로 나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점을 통해 A 씨의 사례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한 ‘인식 있는 과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4문단에 따르면,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은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A 씨의 결과 발생의 위험성의 인식 여부는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④, ⑤ 1, 2문단에 따르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세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므로 A 씨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A 씨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A 씨가 반려견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을 다치게 한 행위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위법성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A 씨에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A 씨가 손님과의 다툼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A 씨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③은 ‘어떤 사태나 일을 벌이거나 터뜨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①의 의미와 가장 가깝다.

②의 ‘일으키며’, ④의 ‘일으킨다’는 ‘물리적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 내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의 ‘일으켰다’는 ‘일어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의 ‘일으키기’는 ‘무엇을 시작하거나 흥성하게 만들다’의 의미로 쓰였다.

□ 출전 : (가) 작자 미상, 「합창정가(合江亭歌)」
(나) 이현보, 「귀전록(歸田錄)」
(다) 남구만, 「조설(釣設)」

3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한 마을 닭과 개 다 먹어 치우고 집집마다 또 거둔단 말인가’를 통해 지배층의 계속되는 수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인사 변한다고 산천이야 변할 것인가’를 통해 화자가 농암에 올라 둘러본 자연이 인간사와 대비하여 변함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는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머루 이용한다면 그것이 어찌 남시 놓는 데만 응용되었는가?’를 통해 글쓴이가 그 사람이 말한 고기 잡는 묘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다른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9.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파악하기

‘산천’은 화자가 농암에 올라 둘러본 자연으로, 변화하는 인간사와 대비되는 공간이며 불변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산천이 인사로 변화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① ‘논밭’은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데, 관찰사의 순행을 위해 논밭이 길로 넓혀지고 있다. 따라서 백성들이 빼앗긴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② ‘팅 빈 부엌’은 아낙이 망아품 삶으로 받은 양식을 관아에 바치기 위해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 공간으로, 음식을 만들어도 담을 그릇마저도 없는 공간이다. 따라서 ‘팅 빈 부엌’을 아낙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③ ‘조당’은 청풍명월이 나며 들며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으로, 화자가 청풍명월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화자가 돌아가고 싶은 자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당을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⑤ ‘연못가’는 글쓴이가 낚시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우고, 고기를 잡는 묘리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다. 따라서 글쓴이의 배움이 확장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시간의 의미 파악하기

(나)의 화자는 팔십 세를 넘어서도 봄(㉠)을 여러 번 맞이했고, 공명을 누리며 장수하고 있음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임금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가 한 해를 또 맞이하게 되는 기쁨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임금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의 글쓴이는 여름(㉡)에 이웃 사람이 나에게 낚싯대를 만들어 준 어찌 낚시를 하게 되면서 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고 고기 잡는 묘리에 대해 들으며 깨달음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은 글쓴이가 낚싯대를 만들어 준 이웃의 친절에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4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가)의 ‘참람한 과거장서 채주 겨루는 유생들아 / 오십삼 주 시예향에 의로운 선비 하나 없단 말인가’를 보면, 화자는 분수에 넘치는 과거장에서 유생들이 채주를 겨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전라도에 의로운 선비들이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장’에서 ‘채주’를 ‘겨루는’ 것을 유생들이 의로운 선비가 되기 위해 과거에 통과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한 마을 닭과 ~ 못 살겠네’를 보면, 관찰사를 위한 뱃놀이를 위해 집집마다 세금을 또 걷는 것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

갈래 복합

이'를 '다시' 하게 되면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한 것을 지배 계층의 유흥을 위해 수탈을 당하는 백성들의 현실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② '낙토에서 태어난 ~가장 말인고'를 보면, 관찰사의 뱃놀이를 위한 수탈로 인해 백성들이 집과 논밭을 다 팔고 유랑길에 오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렴주구로 인해 유랑의 길을 떠나야 하는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③ '노예 차출 ~트집 잡네'를 보면, 노물을 받고 권력을 남용하는 지배층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노물을 받으며 관리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⑤ '망극하도다 나라 ~화가 미치리라'를 보면, 임금님의 은혜는 은혜와 관찰사에게 임금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배은망덕'하면 '자손에게 화가 미치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임금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관찰사를 향한 경고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그러나 내가 자네에게 ~그 묘법을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일세'를 통해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고기 잡는 방법(㉔)대로 낚시대를 물속에 드리워 놓고 정신을 집중하여 늘 그 방법을 익히면 고기 잡는 묘리(㉕)를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㉔에 집중하기 위해서 ㉕에 대한 의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낚시대를 물속에 ~묘법을 이해하게 될 것일세'를 통해 ㉔을 꾸준히 반복하여 익힌다면 마음은 스스로 ㉕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그는 내가 낚던 ~세는 것 같았다'를 통해 ㉕를 터득한 그 사람은 ㉔만을 알고 있는 글쓴이에 비해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고기를 낚고 있다. 따라서 ㉕를 알게 된 후에는 ㉔만 알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고전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세경본풀이』

43.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 방식 파악하기

'자청비가 가져온 ~일어나 않았다.'는 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꽃으로 죽은 문 도령을 살려내는 장면이고, '자청비는 천자국 ~끓어져 버렸다.'는 자청비가 난을 일으킨 군사들을 꽃을 사용하여 물리치는 장면이다. 꽃으로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모두 비현실적인 요소이며, 자청비가 서천꽃밭의 꽃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자청비의 비범한 능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적절하다.

③ '군사들이 건삼밭의 늪은 삼 쓰러지듯'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군사들이 힘없이 쓰러지는 장면을 비유한 것이지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드러낸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44.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자청비는 문 도령과 함께 ~천자국으로 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천자국에 난이 일어나자 난을 평정하기 위해 자청비와 문 도령이 천지왕을 찾아간 것이지 천지왕이 자청비를 찾아간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자청비가 문 도령에게 '나와 닮은 남동생'의 이름이 '자청 도령'인데 '같이 벗어나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대감이 자청비에게 '부모 기일 제사'를 챙기려 하는 것이 '기특하구나'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머슴이 '자청비가 시킨 대로 손을 한 번 탁' 치자 '화들짝 놀란 군졸들'이 겁을 먹고

'도망쳐 버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자청비가 '천자국 병사들을 철수시키고는 수레말망악심꽃'을 뿌리자 '난을 일으킨 군사들'의 '숨이 끊어져 버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자청비가 무쇠 방석을 '우리 낭군이 깔고 앉았던 방석'이라고 말한 것은 군졸들이 문 도령의 힘이 세다고 오해하게 만들기 위한 함정이다. 따라서 군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볼 수 없다.

① 자청비가 문 도령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남복을 입고 '자청 도령' 행세를 한 것은 남성인 문 도령과 동질성을 획득하여 함께 글 공부하러 가기 위한 속임수로 볼 수 있다. ② 자청비가 '다른 선비들처럼 글공부하러 가고 싶'다고 하자 '계집아이가 글을 배워 무엇에' 쓰냐며 글공부를 제지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청비가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사회적 제약으로 볼 수 있다. ④ 문 도령이 하늘 무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위협을 느낀 자청비는 죽은 문 도령이 있는 방에 '매미', '등에', '봉황새'를 미리 걸어 두어 이들이 내는 소리가 문 도령이 '코 고는 소리'로 들리게 만들었다. 또한, 머슴에게 박수 소리를 내게 하여 군졸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게 만든 것은 문 도령이 살아 있는 것처럼 상황을 미리 조작하여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자청비는 천지왕에게 '제주 땅에 내려가서 심을 오곡의 씨앗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여 '여러 곡식'을 받는다. 이것은 자청비가 제주 백성이 농사 짓고 살게 해 주기 위해 씨앗을 받은 것으로, 자청비가 지닌 세경신으로서의 면모로 볼 수 있다.